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월 12일

CUOMO 주지사, 심한 독감 시즌에 대응하여 주 공중보건 비상 선포

6개월~18세 사이의 환자에게 약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 발행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금년의 점점 심해지는 독감 시즌에 대응하여 뉴욕주 전역에 공중보건 비상을 선포하였습니다. 주지사는 6개월~18세 사이의 환자에게 약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면역제를 투여할 수 있는 약사의 권한을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만으로 제한하는 뉴욕주 교육법 조항을 다음 30일 동안 정지합니다.

이번 시즌에 뉴욕주에서 이미 19,128건의 독감이 보고되어 지난 시즌(2011-2012)에 전체적으로 보고된 총 4,404건의 양성 검사실 검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5일 현재, 뉴욕주 보건부(DOH)는 2,884명의 환자가 검사실 확정 독감으로 입원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2011년에는 총 1,169명이 입원하였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주에서 2명의 어린이와 전국적으로 18명의 어린이가 금년 시즌의 독감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2009년 이래 최악의 독감 시즌을 경험하고 있는데, 뉴욕주에 독감 활동이 널리 퍼져 있으며 57개 카운티 모두와 뉴욕시의 5개 자치구 모두에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 공중보건 비상을 다루고 어린이와 성인의 구분 없이 모든 뉴요커들이 절실히 필요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본인의 행정부, 주 보건부 및 기타 기관에 모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독감 사례가 계속 급상승하므로 주지사는 아직 독감 주사를 맞지 않은 뉴요커들에게 즉각 접종 스케줄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모든 뉴요커들이 독감 주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지사는 주 보건부가(DOH) 카운티, 지역 및 민간 의료 파트너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독감 예방접종 홍보를 널리 펼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홍보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의 독감 관련 정보 및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언론 속보 및 매체 이벤트, 전용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전파될 것입니다.

또한 주 보건부는 아직 독감 주사를 맞지 않은 모든 뉴요커들이 즉시 접종을 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모든 의료 제공자들이 환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지속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 병원, 장기 요양 시설, 지역 보건부 및 약국에 보건 속보를 계속 발행할 것입니다. DOH는 의료 시설에게 독감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한 웹 기반 툴키트를 제공합니다: www.health.ny.gov/prevention/immunization/toolkits/.

뉴요커는 http://flushot.healthmap.org/를 방문하여 자신의 우편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지역 예방접종 제공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뉴요커는 1-800-522-5006에 전화하거나 1-800-655-1789의 TTY 액세스를 통해 인근 예방접종 제공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금년의 알려진 독감 바이러스들을 테스트하고 그것을 2012-2013 독감 백신에 포함된 세 가지 바이러스에 매칭시켜 왔습니다. 현재까지, 테스트된 독감 A (H1N1) 바이러스 및 독감 A (H3N2) 바이러스는 모두 백신에 매칭되고 알려진 독감 B 바이러스의 약 69%가 백신에 매칭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아직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뉴요커들에게 예방 접종이 너무 늦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뉴욕주 전역의 의원, 지역 보건소 및 약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은 종종 늦겨울 또는 이른 봄까지 지속되므로 년중 이 때의 예방 접종은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DOH는 나이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받도록 권장합니다. 6개월 미만자는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퍼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 또는 위험이 높은 사람과 규칙적으로 접촉하는 가족 및 사람들이 독감 주사를 맞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의료인들은 자신과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독감 및 기타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독감의 증상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빨리 오고 더욱 뚜렷합니다. 독감에 걸린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침 또는 인후통뿐만 아니라 고열, 오한, 심한 두통 및 근육통이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합병증 없이 독감에서 회복되지만 2세 미만, 50세 이상의 사람, 임신 여성 및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 또는 만성 질환자에게 독감 바이러스는 더 심각한 위험을 제기합니다.

고열, 기침 또는 인후통 같은 독감 유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의사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많은 뉴요커들이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에 갑니다만 자신의 의사가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지 않는 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주 감시를 포함하여 독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주 보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health.ny.gov/diseases/communicable/influenza/seasonal/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